

글. 서정임 수석기자
사진. 유승진



**사진적 태도가
형식이 될 때**

아누크 크라이토프

아누크 크라이토프(Anouk Kruithof)는 1981년 네덜란드 도르드레흐트에서 태어났다. 현재 베를린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사진을 출발점으로 삼으며 작업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작가는 'Het Vijfde Seizoen'(Den Dolder NL) 'Meetfactory'(Prague) 'Photoglobal'(SVA New York) 등 레지던스를 거쳤으며, 16여 회의 개인전을 가졌다. (New Wight Biennial)(UCLA Los Angeles, 2012), (Gentle War)(Moholy-Nagy Galerie Berlin, 2012), (Dutch Doc Award)(Tropenmuseum Amsterdam, 2012), (Photography is...)(Higher Pictures gallery New York, 2012) 등 기획전에 참여했다. 올해 대구사진비엔날레의 특별전 <젊음의 코드>에 작품 (The Daily Exhaustion)(2010)을 출품했다.



아누크 크라이토프(Anouk Kruithof)
The Daily Exhaustion
신문지로 만든 무료 잡지
가변 크기
2010

아누크 크라이토프(Anouk Kruithof)
Wall of Fading Memory
작가의 아카이브에서 가져온 100장의 사진.
폼보드, 나일론 실
2012

동시대예술에서 사진은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된다. 사진은 그 자체로도 예술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실재를 프린트한 사진을 피부로 삼는 조각, 대상의 외형을 찍어 어떤 가변적인 형태를 만들어 조형성을 획득하는 설치미술품 등의 재료로도 자주 애용되곤 한다. 그런데 이 작품들에 '왜 이 매체를 사용하는가란 질문을 대입해보면, 사진을 재료로 하는 이유의 정당성을 찾기 힘든 것들이 많다. 물론 어디에는

쓰일 수 있는 유연성과 동일한 이미지가 대량생산될 수 있다는 사진의 기계적 재현 능력은 여타 예술과 교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지만, 반대로 그러한 작품들에서 사진이란 매체의 본질적 특성-대량복제, 프린트, 파급효과-은 삭제된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올해 대구사진비엔날레에서 나탈리 허쉬도르퍼(Nathalie Herchdorfer)가 기획한 특별전 I (젊음의 코드)에 참여한 젊은 작가 아누크 크라이토프(Anouk Kruithof)의 작품은 사진을 이용한 설치작품 범주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평면성을 극복하기 위해 사진을 3차원의 공간을 점유하는 조각 작품으로 제시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노선을 택한다. 아누크는 오히려 '사회적 요소'를 탑재한 사진의 근본적인 속성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기계적 복제성 즉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복사해 원본의 질을 그대로 유지하며 대량으로 유포시키는 성격을 작업 과정과 결과물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한다. 거듭 강조하자면 "차로 사진을

찍어서 이미지를 갖고, 그것을 어떻게 할지 정한다"는 작가의 말처럼 '형식이 태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태도가 형식이 되는' 작업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한 중세 건물에서 진행된 설치작업 (Untitled(I've taken too many photos, I've never taken a picture.))는 한 번도 사진을 찍어본 적 없는 남자를 찾아내 인터뷰하고 그에게 일상에서 채집한 자신의 사진 3,000여 장 중에서 75장의 사진을 중세 건물의 천장에 매달아 배치하고 관람자들에게 손거울을 하나씩 나눠준 후, 공간을 거닐며 천장의 사진을 거울에 비춰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것은 사진기를 접해 보지 않은 사람이 이미지를 어떻게 조직화하는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그렇게 조직화된 이미지를 사진에 익숙한 (휴대전화 카메라, 디지털카메라 등을 언제나 사용하는) 관람자들이 거울이란 프레임을 통해 어떻게 이미지를 재조직화하는지를 아주 단순한 방식으로 실현한 것이었다. 또한 사람들의



움직임에 따라 천장의 이미지들이 차례대로 거울에 맞닿다 지나가는 현상은 현대에서 이미지가 찍혀 유통되는 경로를 은유적으로 제시한 것과 같다.

이번 대구사진비엔날레에 출품된 (The Daily Exhaustion)은 대량 복제되어 유포되는 사진의 속성에 매일매일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퍼뜨려지는 '신문'의 형식을 덧대어 보여준다. 아누크의 처음이자 마지막 자화상 작업이기도 한 이 작업은 작가가 헬스장에 가서 사이클 앞에 카메라를 설치한 후, 페달을 밟는 속도를 높여가며 또 옷을 바꿔 입으며 점점 지쳐가는 자신의 모습을 연속해서 찍은 것이다. 아누크는 그렇게 얻어진 많은 이미지들 중에서 23장을 선택해 (기존 사진의 인화지로서는 부적절한) 신문에 대량 인쇄했고 그것을 사람들이 무료로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이 작품은 대량 복제라는 측면을 유지하되, 일부러 예술을 저급한 프린트 형태로 배포시키며 (예술작품이 되기 위해 에디션을 만들고 필름을 폐기시키며 고급인화지에 대형으로 인화돼서 액자로 한껏 치장한 채 벽에 걸리는) 오늘날 예술사진이 잊고 있는 사진의 의미를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흥미로움을 더한다.

이처럼 사진의 매체적 성격을 아주 단순한 방법론으로 일깨우는 아누크는 회화와 같은 캔버스를 흉내 내기에 바쁜 현대 예술사진의 신화를 깨트리면서 사진의 경계를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대구사진비엔날레에서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





아누크 크라이토프(Anouk Kruitthof)
 Enclosed Content Chatting Away In The Colour
 Invisibility
 C-프린트
 100×125cm
 ed.10(+2ap), C-프린트
 30×40cm
 ed.25
 2009



아누크 크라이토프(Anouk Kruitthof)
 UNTITLED
 (I've taken too many photos I've never taken a photo)
 3종류의 75 잉크젯 프린트
 30개의 거울, 1000장의 포스터
 24×32cm, 30×40cm, 50×70cm
 2012

